

2025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1.23.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4	2	12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장래숙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3	-	2	9	-	9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9	-	-	9

다. 전월(1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에너지 기획 보도> 에너지 기획 보도는 석탄발전소가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준비하는 건지?	에너지 전환 주제로 방송기자연합회의 해외취재 지원 건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해외취재 후 보도를 하게 됨. 별도의 다큐멘터리도 준비하고 있음 <25. 1월 조치>	'24.12월
보도	<12.3 내란 용어 사용> 12.3 내란이라는 용어 사용 관련해서 법조계의 시각도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의 용어를 뉴스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듦	비상계엄 후 시민들의 눈높이와 법률적인 한계에 따른 용어 사용이 다른 상황에서 본사에 검토를 요청했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해 12.3 내란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됨 <24. 12월 조치>	'24.12월
보도	<시민이 되살린 민주주의 연속보도> 전국적인 뉴스의 흐름에 휩쓸리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조명해 주었는데 여러 명의 기자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음	아이템 팔로우에 2~3명 필요하고 저녁 생방송에도 별도의 팀이 필요함. 해당 아이템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다루기 위해 모든 취재인력을 투입해야 했음 <24. 12월 조치>	'24.12월
보도	<시청자게시판 관련 의견> 서울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리포트 중간에 대전지역 방송으로 넘어가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전 지역 사업주의 문제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대전MBC 차원의 재보도 의견을 드림.	당일 지역에서 시국 선언이 크게 있었고 시발병, 대전교도소 교도관 송치 등 중요한 뉴스 처리와 본사 아이템 추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절반만 송출하게 됨. 다시 심도 있는 보도를 검토하겠습니다 <25. 1월 조치>	'24.12월
교양	<시시각각 구성 관련> 탄핵정국에서 지역의 과제를 다룰 때 토론보다는 나열식의 방송을 했음. 토론프로그램답게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면 좋겠음	섭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섭외에 응하지 않아 반대쪽 의견을 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논쟁다운 논쟁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5. 1월 조치>	'24.12월
교양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지역민이 주인공이라는 설정으로 22편의 캠페인 내용이 좋았음. 좀 더 다양하게 주인공이 되는 캠페인 진행을 제안함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연중캠페인은 올해 히트작이라고 생각함. 내년에도 비슷한 시리즈가 이어지도록 하겠음 <25. 1월 조치>	'24.12월
교양	<이중수 도예가 다큐멘터리 관련> 대전시 이중수 도예가 미술관 건립관련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기금이 지원된다면 이중수 도예가 다큐를 제작해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함	대전MBC에서 15년 전에 이중수 도예가 다큐를 제작한 적이 있음. 제작 여건이 된다면 과거 자료도 활용하겠습니다 <추후 조치>	'24.12월
기타	<프로그램 아이템 검색>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할 때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뉴스가 검색이 되고 프로그램 조회는 어려움. 키워드 등을 넣어서 찾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할 때 아이템으로만 검색하면 보도가 먼저 보여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 1월 조치>	'24.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하나시티즌 전지훈련 보도> 전지훈련 보도를 4회차로 나눠서 보도한다고 했는데 4회차까지 보도할 내용인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가 6차례 보도됐는데 세종보 농성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끝까지 취재를 하셔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현대제철 관련 보도> 현대제철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뉴스를 보시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취재를 해줬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부석사 불상 관련 보도> 부석사 불상 100일 동안 행사가 대전에서 시작해 서산으로 가는데 행사내용, 학계이견, 국민감정 등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건강플러스>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고 OX퀴즈도 사라져서 아쉬운 면이 있음. 자막 등 시각적 전달은 잘됨.	회의록 첨부	○		
교양	<성우 내레이션 관련> 성우 내레이션이 프로그램 속에 녹아드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무호 성우의 목소리는 화면과 잘 어울린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은퇴 후 세계여행> '은퇴 후 세계여행' 코너는 한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연속 아이템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기타	<열린TV 미디어리뷰 업로드> 열린TV 미디어리뷰는 대전MBC가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자막 맞춤법 관련>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자막 맞춤법이 틀리면 프로그램 전체의 품격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주의해주시길 바람.	회의록 첨부	○		

2025년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4시30분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장래속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1월 시청자 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위원 10분 중에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게시판 의견 접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올라왔는데 보도 내용 불만이 2건, 홈페이지 수정 요청 1건 그리고 기타 문의 및 제보가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온이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저희가 서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정기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2025년 첫 번째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인데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정리 정돈되면서 방송도 안정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1월 시청자위원회에도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속 위원님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속 위원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하고 힘든데 오늘은 새해이기도 해서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M>을 보면서 화면이 너무 예뻐지고 특히 MC들의 옷차림들이 밝아졌고 코디를 너무 잘했습니다. 12월에 비해서 1월부터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밝아져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인생내컷> 성우 내레이션이 프로그램 속에 녹아드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월 5일 방송한 한석주 소장님의 소멸위기의 농촌에서 행복한 농촌의 가치를 복원하다 라는 내용을 보면서 내용도 좋았지만 내레이션 신무호 성우님의 목소리가 화면하고 잘 어우러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화

뉴스를 찾아보고 왔는데요. 1월 21일 김성국 기자님의 ‘입틀막 대전시장 언론 소통 강화하겠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대전MBC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시장은 언론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약간 반성의 뜻이 담긴듯한 말은 하지만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은 걸 담아내셨고 김성국 기자님이 MBC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없냐 이 말에 대해서도 말도 하지 않고 나가고, 또 대변인도 대전MBC가 질문의 기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택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부분을 보면서 대전시장님이 정말 할 말이 없겠다... 무슨 말을 해도 못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질문 공세들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변인이 국정보다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국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보다 뭔가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말들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했지만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뉴스에서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M>을 봤는데 진짜 화사한 장미꽃이 있었어요. 소품 장미꽃을 계속 보니까 겨울이라서 꽃값이 비싸서 못 사는데 그 꽃이 놓여 있네 하면서 쳐다봤거든요. 정말 봄처럼 화사하게 꾸며주셨고 진행자 분도 밝은 옷을 입었고요. 내용도 알랐던 게 새해에 책 읽을 결심이라고 해서 천안의 동네책방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게 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겠다는 인터뷰를 해주었는데, 전에 <시시각각> 동네서점의 위기를 설명했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소통하고 있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소개해 주신 점은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특히 이색운동 건강지킴이로 옴니 피트니스와 애니멀플로우를 소개해 주셨고 특히 초대석에서 '수길따라 유튜브' 최수길님이 나와서 여행했던 곳을 소개해 주는데 모처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소개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 같아요. 산뜻하고 괜찮았습니다.

<인생내컷>에서는 몽타주 전문 수사관으로 활약하는 서양화가 정창길님과 금산에서 활동하는 박석신 화가님도 나왔는데 지역에서 예술가분들이 어떤 활동을 연계해서 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분이 원래 어렵게 그림 공부를 했지만 수사관으로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셔서 돌고 돌아서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한다는 그 내레이션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분이 살아온 길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위원님들 두 분 모두 따뜻하고 온화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섬교 위원

시국이 하 수상한 상황에서 대전MBC가 의식 있는 방송으로 선봉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뉴스는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따뜻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봤고요. 1월 2일 '이음'이란 코너에서 봉사 이상의 의미로 헌혈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도해 주셨거든요.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전쟁 7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상중이오>에서 골렘골 이야기를 재방송해 주셔서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유령 단체에 철도공단이 수상한 지원금'을 보도했는데 동아시아 철도포럼에 3천만 원씩 6년간 지급된 철도공단의 수상한 지원금에 대한 보도는 시원하고 신선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1월 18일 <건강플러스> 주제가 위암이었어요. PD님이 교체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볼 때와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거든요. OX퀴즈는 사라져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위암에 관한 내용이나 진행자와 전문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서 시청자로서 보기 편했고 꼭 알고 싶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와 상담해 주신 전문의의 내용들이 자막으로 나왔는데 '메디컬포커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서천 특화 시장 화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했는데요. 서천 특화 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랜드마크를 꿈꾼다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하면서 지역민들의 도움과 모금 운동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잃지 않고 모금을 통해 시장을 다시 임시로 열 수 있었다는 보도는 '함께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하나시티즌 태국 전지훈련' 보도가 있었는데 이 훈련보도를 4회 차로 나눠서 보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4회 차까지 보도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성일 위원

2025년 첫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MBC 입틀막 보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왜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리고 MBC 입틀막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이장우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는 보도도 잘 봤고요. 저도 그 캠페인에 함께하기도 했는데 대전MBC가 계속 힘을 내서 지역 시민들의 눈과 입이 되는 활동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가 6차례 정리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도를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된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입양인 부모 찾기', '서구 관저문예회관', '대전교도소 폭행', '불법 촬영', '경찰 비위', '시국 선언' 등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보도를 해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교복 담합 문제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있었죠. 또 조만간 300일이 다가오는 세종보 농성 부분에 있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처럼 끝까지 취재를 하셔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번 달도 내란 상황 이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통 중앙 언론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전MBC는 지역성 이슈를 잘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퇴진 운동 1년, 내란 한 달, 내란 사태 43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김영태 신부나 임은정 부장검사를 활용해서 지역만의 특성을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내란 수괴를 엄호하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보도도 계속 이어나갔던 것도 지역성의 특수성을 잘 표현해낸 것 같고요.

현대제철 관련 보도가 지난 회의 때 그 날 나간다고 했었는데 현대제철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23일과 29일 관련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이 부분도 취재를 잘 해 나가시면 좋으

실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된 보도가 두 차례 있었죠. 1월 8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 제기를 하고 21일에 연속 보도를 한 부분은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명절 상여금이 없거나 건강검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차별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석사 불상 관련 보도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내일 아마 부석사에서 100일간 봉안되는 그 행사가 대전에서 시작해서 서산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에서 원 소유는 인정하면서도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의 법리를 들어서 일본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었죠. 한국인이라면 그 판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 보도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100일간 봉안이 될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다뤄보는 것도 지역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린TV 미디어 리뷰>는 김영진 위원이 참여해서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대전MBC가 스스로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지만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4일에 '위험천만 난폭 운전' 보도가 있었는데 유튜브에도 영상이 없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이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역MBC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은 우리 지역 내용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다음 달에 많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종영한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성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그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후에 프로그램 만드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휴식을 잘 거치신 뒤에 그에 못지않은 프로그램을 또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주영 위원

오늘은 방송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도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성과 공익성이 돋보였던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 후속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특히 '취재가 시작되자'는 시청자들에게 보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혼 혼한 내용의 아이টে을 선정해 보도해 주셔서 따뜻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따뜻한 뉴스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개편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M>도 진행자나 내용 구성이 변경된 것 같고요. 세트 구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생내컷>은 보고 있으면 여전히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농촌공동체연구소장 한석주 소장님, 몽타주 전문수사관으로 활약하는 서양화가 정창길 님 모두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좋은 프로그램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대전MBC 보도에 대해 아이টে 선정이나 후속 보도 그리고 낮은 곳으로 계속 시선을 주는 그런 자세 등등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더 명료하게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들도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1월 22일자 <오늘M>을 보면서 화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분 진행자 분위기가 특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약간 더 가미가 된 거군요. 특히 씨름 동호회 코너가 좋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방송에 흔하게 담겨진 적 없는 소재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물론 리포터도 가서 잘했고요.

초대석에 '은퇴 후 세계 여행'은 연속으로 계속 가는 거는 아니죠.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연속 아이টে이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요. 한 번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 지역이 라오스였던 것도 아쉬웠고 라오스 주변만 조명했던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요즘에는 리얼로 구성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본이 촘촘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대화의 주도권이 초대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진행자들이 주도하면서 초대 손님이 채워줘야 하는 대본이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한동안 초대 손님으로 넘어가면서 자료를 읽고 자꾸 뒤적뒤적하면서 말이 점점 문어체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약간 뒤늦게 진행자들이 들어왔거든요. 대본 구성에서 어떤 흐름을 유지하는 단단한 긴장감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늘 흐트러져 있는 건 아니고 이번 편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베 짜는 부분에서 자막이 유튜브 판이었는데 방송 자막이 있었는데 모르겠지만

그 맞춤법이 틀렸거든요. 프로그램이 꼭 아니더라도 유튜브 자막에서도 그런 맞춤법이 살짝 틀려서 한 번 눈에 띄이면 프로그램 전체의 품격을 손상시키기 쉽거든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지역 라디오 뉴스를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 지역 아나운서들의 고정장당의 정확성을 듣게 되는데 틀리는 사람은 없지만 비교가 되거든요. 약간 틀리는 게 나오면 여기가 어디였지 하고 기억해 두거든요. 어쨌든 지역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면 굉장히 튀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막도 1년에 한 번 틀린다고 해도 그걸 누가 보면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뉴스를 많은 관심 속에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2월 3일 이후에는 내란 사태에 반발하는 시민이 프레임의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구속이 있어서 내란 동조쪽으로 프레임을 맞춰서 지역에서 협조했던 분들의 행태나 행보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뉴스를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시장의 입장도 자꾸 여쭙보게 되는 거고 어제는 강승구 의원한테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음’은 지난해부터 연중 기획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는 뉴스고요. ‘취재가 시작되자’는 연말 결산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회가 변해갔는지를 한번 챙겨서 뉴스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기획이었습니다. 지금은 연중 상시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보 문제나 지천 댐 반대 투쟁 문제, 그리고 현대제철의 노동자 사망 문제도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타이틀 품으로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완성도 높은 뉴스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석사 불상 문제는 비합리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반환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되는 거고 내일 대전 출발부터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돼서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까지 봉안되는 기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문제 사안으로 같이 엮어 볼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기획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겨울 시즌에 지역 연고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모두 전지훈련을 갑니다. 이번에도 방송 3사 스포츠 담당 기자들이 같이 가서 아이템을 짜다 보니까 네 쪽지로 진행되는 거고요. 2월에는 오키나와에 가서 한화이글스 야구 전력 분석 내용을 할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지루하지 않게 정리를 잘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단이나 업추비 관련 보도는 보도국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유일하니까 그런 쪽의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발제를 해서 발굴하는 기사들이 돋보이는 기사들이 많

았던 것 같고요. 그 기자에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1월 6일 자로 개편을 시행했고요. <오늘M>은 새해 첫날 1월 1일 방송부터 미리 당겨서 개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세트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4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니 노후화된 것도 있었고, 타일 같은 시트지를 벽면과 바닥 쪽에 붙여서 책장 같은 걸 만들어서 북카페 느낌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욕탕 같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올해 개편을 했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변경하는 선에서 빼대는 그대로 두고 시트지 바꾸고 화분이나 꽃을 배치하고 책상을 길게 V자로 새로 짜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사하게 잘 바꾸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콘셉트 자체는 온실이라든가 화초들 위주로 해서 밝은 느낌 낼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도 놓여 있는데 뒤에 있는 화초나 꽃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가면서 계절감도 느낄 수 있게 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하면서 진행자도 교체가 됐고요. 원래 유지온 아나운서가 2020년에 <오늘M> 처음 론칭할 때 남유식 아나운서와 둘이 진행했다가 남유식 아나운서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여성진행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었는데 원년 멤버들이 다시 만났고 둘이 친하기도 해서 재미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클럽 운영중’은 이영중 리포터가 이름이 영중이니까 클럽 운영중이라고 해서 약간 말장난처럼 제목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새로 선보인 코너고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클럽들을 다니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개편을 했는데요. 초대석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부동산, 증권주식, 지역 과학계 소식, 시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매주 바뀌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정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다채롭게 게스트를 섭외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초대석을 선보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수길 따라’ 유튜브 하시는 분은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분이 춘천에 사시는 분이세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봐서 담당PD에게 고정으로 모실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지역이 멀기도 하고 강원영동MBC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하고 대전MBC에 먼저 나오신 거라서 매달은 힘들고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시는 걸로 부탁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지역을 바꿔서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행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생활비가 어떻게 드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한번 모셔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TV 미디어리뷰>는 홈페이지에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같은 경우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PD들이 자막 뽑을 때 한번 검수하고 나중에 자막 치는 분이 자막 다 치고 나서 한 번 또 확인을 하고 자막을 입힐 때 한 번 또 확인하고 이런 세 번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가끔씩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더 신경 써서 틀리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내컷>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레이션 성우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신무호 남자성우분과 여성 한 분을 번갈아서 내레이션을 입히고 있고요. 출연자가 남성이면 남성 성우를, 출연자가 여성이면 여성 성우를 분위기 맞춰서 그때그때 번갈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내컷>도 60회가 조금 넘었거든요. 성우들도 처음에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프로그램 성격과 잘 맞아 녹아 들어가면서 내레이션들이 더 조화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길 수사관 같은 경우는 유키즈에 한 번 나오셨던 분이라 화제가 됐던 분인데 마침 지역에 연고가 있으셔서 어렵게 섭외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큐 <나는 상중이오> 재방송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 국가 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다큐 내용도 국가 폭력에 관해 다룬 한 편이어서 시의성을 맞춰서 특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좋은 다큐들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특별한 시의성이 있을 때마다 특집 편성을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는 현재 <오늘M>을 담당하는 PD가 작년에 담담을 하면서 세트를 바꿨는데 세트를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막 포맷 등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재 담당PD에게 잘 전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지요?

손병우 위원장
불상 반환이요. 그게 약탈됐다가 훤히온걸 발각이 돼서 압수됐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 잘 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사학계의 입장은 단일한 건 아니지만 약탈해 갔지만 정당하게 반환을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국제적으로 일단 국경선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실력

행사를 해서 우리 거라고 압수해 버리면 일본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약탈되어 있는 문화재를 반환은커녕 전시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경안으로 들어가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는 게 옳다는 입장을 듣고 저도 우리 건데 이걸 돌려줘야 하다니 하고 너무 가슴이 쓰라렸는데요. 어쨌든 학계에는 그런 입장도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뭔가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감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양분법적으로 국민감정에 위배되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이 많다는 쪽으로 가서는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역사학자의 얘기를 들어서 비로소 조금 인식하게 됐는데 제3의 입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고 사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2025년에 대전MBC 시청자위원님들께서도 우리부터라도 분위기를 조금 밝게 가져가자 이런 마음들이 같이 모이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마음들이 대전MBC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돼서 앞서서 2025년을 화사하게 만들어가는 대전MBC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여러 평가와 지적 감사드리고요. 좋은 평가만 많이 해 주셔서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보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사규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처한 이슈가 된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도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런 내부 기준에 따라 지역 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과 깨알 같은 지적까지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